다문화 사회를 위한 연중기획

고마워요 당신의 땀방울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과 꿈

〈2부〉 코리안 드림 꿈꾸는 그곳에선

❸ 방글라데시 한국어능력시험

시험 접수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

하루 3~6시간씩 정전되는 최빈국서 인터넷으로만 접수

한국공단 시험문제 엉망진창…"세종대왕 아시면 개탄할 일"

방글라데시가 '한국어능력시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한국정부와 '고용허가제 방식의 인력송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에 따라 두 달 전 한국어 시험이 치러졌지만, 응시자 모집과정에서부터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세종대왕님이 아시면 개탄할 일입니다" 지난 1일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Dacca) 시내에서 한국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상현(40) 원장은 지난 2월 현지에서 치러진 '한국어능력시험'를 한마디로 혹평했다.

한국정부가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루에도 3~6시간씩 정전이 되는 최빈국에서 인터넷 시험접수를 받다보니 사이트 접속 자체가 '코리안 드림'의 1차 관문이 되어버린 셈이다.

한국정부가 응시인원을 적정선으로 끊는 바람에 접수는 시작된 지 1시간30분 만에 끝나버렸고, 실제 시험을 치른 응시생은 5천700여명에 불과했다. 접수 당일 해당 사이트에 접속된 IP만 10만여 개에 달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치르지 못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박 원장의 학원에서도 첫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생이 120여명 이었지만 막상 한국어 시험을 치른 학원생은 전체 학생의 50%도 미치지 못했다. 수개월 동안 시험을 준비했던 학원생들이 응시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런 현지 사정 때문에 접수를 대행하는 브로커가 기승을 부렸고, 수많은 학생들이 접수비 명목으로 1천 타카(한화 1만5천원·중산층 한 달 월급의 5분의 1) 이상을 지불하기도 했다.

한국 산업인력공단(이하 산인공)에서 출제한 시험문제 역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 한국어로 된 50문항의 지문 밑에는 현지 언어인 뱅골어가 병행표기 돼있었지만 해석이 틀린 문제만 6개가 넘었다.

A형 문제지 8번 문제 지문은 '이것의 맛은 어떻습니까'라고 해석돼야하지만 '날씨는 어떻습니까'라고 표기돼 있었고, 23번 문제 '남성은 어디에 전화를 걸었습니까'는 '남성이 무엇을 좋아하나요'라고 엉뚱한 해석이 적혀있었다.

한국에서라면 합격자가 뒤바뀔 수도, 재시험을 치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곳에선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현지에서 만난 한국어학원 관계자들도 "'우수한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고 한국문화를 널리 알리자'는 한국어 시험 본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시험문제 난이도가 한 달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낮아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 2차 한국어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조차 "일단 접수에 성공하면 그때부터 학원에 다니자"고 말할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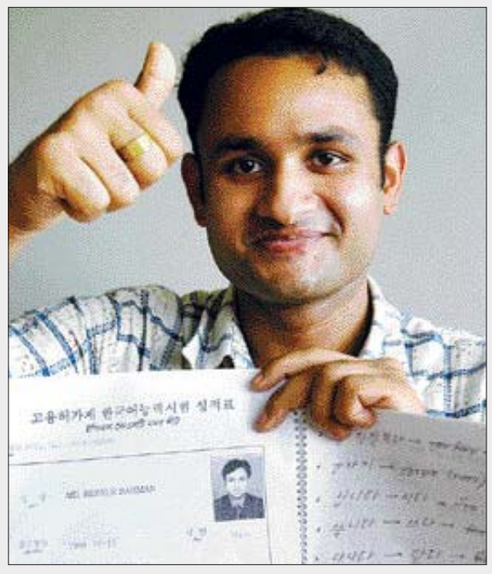
앞으로 산인공이 계획 중인 예상문제집이 각 나라에 배포되면,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오직 시험문제만을 족집게처럼 집어주는 학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것이 불 보듯 뻔했다.

박 원장은 "한국에서는 중학교 때부터 수천 만원을 들여서 영어공부를 시키면서, 동남아의 '토익'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한국어 시험을 요식행위로 만든 정부를 이해 할 수 없다"며 "'한국의 우수한 문화와 언어를 보급한다'는 생각으로 시험을 준비해야만 '우수인력 확보'와 '한류열풍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글라데시 다카=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인구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앞질러 취업이 어려워진 방글라데시 젊은이들에게 '한국행'은 곧 '성공의 지름길'이나 다름 없다. 지난 1일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다카 시내 중심가.

■ 한국어능력시험 '만점' 영예 라집 씨



한국어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라집(23)씨가 시험성적표와 연습노트를 보여주고 있다.

"자나깨나 한국갈 생각 꼭 일자리 주었으면"

"한국에 빨리 가보고 싶은 마음에 자나깨나 한국어 공부에 열중했는데 만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카에 거주하는 라집(23)씨는 지난 2월 치러진 한국어검정능력시험에서 방글라데시 응시자 중 최고점을 기록했다. 그가 내민 성적표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의 직인과 함께 '듣기 100점, 읽기 100점, 합계 200점'이라는 최고 성적이 기록돼 있었다. 한 문제당 4점씩, 읽기와 듣기시험 50문항을 모두 맞춘 것이다.

그러나 화려한 성적에 비해 그의 한국어 공부 경험은 짧다. '부모님과 형제들을 위해 한국에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 불과 3개월 전일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자와 통역 없이 한국말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한국어 어휘력이 눈부시게 발전했다는 것이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단어를 외우고 받아썼고, 뜻이 생각나지 않아 잠을 이루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학원의 수강기간이 끝난 뒤에도 거의 매일 학원을 찾아가 강사를 귀찮게 했었죠." 놀라운 성적의 비결은 그가 성적표와 함께 보여준 연습노트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

하지만 최고성적을 받은 라집씨도 '한국행'을 보장받은 것은 아니다. 그는 "적지 않은 응시료를 내고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한국 기업에서 불러주지 않으면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며 "한국을 동경하는 방글라데시 응시생들의 마음을 헤아려 한국 정부가 꼭 일자리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한국어 시험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그는 "전체적으로 시험의 난이도가 낮은데다 한국어 시험문제를 방글라데시 언어로 잘못 해석해 준 것도 학생들을 헷갈리게 했었다"며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인을 이해하고, 한국문화도 배울 수 있도록 시험방식이 바뀌면 좋겠다"고 말했다.

SALE
50%→
4월30일 까지
홍 이태리가구전문점 스페이스
☎상/담/주/문/전/화 062)226-7565~7
▶HOME PAGE: www.홍스페이스.kr또는 www.hongspace.kr
▶ADDRESS: 동구 장동 58-15 홍스페이스 빌딩
※홍스페이스는 OEM이 아닌 100% 이태리 완제품 을 수입판매 하고 있습니다.
전여고 장동로타리 금남로 동구청 조대 (구)도청

무안기업도시
망운국제공항 3분거리
시세가대비 45%신축공장
대지9883㎡ [2990평] 건평3671㎡
[1110평] 2동 사무실관리동 1동 층고 10m 경매진행중 2007타경1525
감정가 16억5천 현재가7억3천 유치권으로 인한 경매방해사료됨
유치권배제 신청서 법원제출 소제기중
실수요자 적합 [대출가능]
서남해안시대
【서남권 100만 광역도시계획중심지역】
투자최적 물건현황, 관련서류상담
대한민국NO.1 경매사이트
스피드 옥션
www.speedauction.co.kr
☎(062)236-0051, 핸017-614-0000